

가을여행 태권도원 '각광'

전년대비 148.2% 증가 전국 주요관광지 중 올 관람객 증가율 1위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이하 재단)은 지난 10월 24일부터 2주간 진행된 '가을 여행주간' 중 관람객 증가율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다.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6 가을여행 주간 전국 주요 관광지 관람객 현황'에 따르면 전국 주요 56개 관광지의 전년대비 관람객 평균 증가율이 9.5%(인대 반면, 태권도원은 14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재단은 2016년 가을 여행주간에 맞춰 태권도의 진수를 선보이고 관람객의 편의성 증대와 쌍방향 소통을 위한 '무료입장'과 태권도 퍼포먼스 공연인 'The Great Change, 天(천) 惠(혜) 왕국 태권도원', '온라인(블로그&SNS) 이벤트' 등을 기존 태권도원



가을여행 주간 중 태권도원 가을애(愛) 가족캠프'를 열었다.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에 추가해 진행했다. 특히 가을여행 주간 중인 11월 5일부터 6일, 30여명의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태권도원 가을애(愛) 가족캠프'를 열어 태권도 체험 및 태권도원 탐방, 덕유산 케이블카 탑승 등 청정 자연 속에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한편, 가을 여행주간 종료 후에도

태권도원에서는 매일 2차례의 '태권도 시범공연' (11시,14시/T1공연장)과 '도전 격파왕' (16시/T1공연장)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한 '태권도원 투어', '모노레일 탑승 및 전망대 관람', '국립태권도 박물관 견학' 등 태권도 문화를 통한 다양한 즐길거리와 멋진 자연을 배경으로 한 산책코스를 누릴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술잔은 가볍게, 귀가는 빨리'

장수군, 음주폐해 예방의 달 홍보·캠페인

장수군은 10일 "음주폐해예방의 달 홍보 및 캠페인"을 장수시청 원과 장수시장 일대에서 '술잔은 가볍게, 귀가는 빨리, 음주도 스마트시대'라는 슬로건으로 군민과 함께 음주 및 중독 폐해예방 연합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음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흡연, 도박, 약물(마약) 중독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다. 또 군은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대국민서명운동 300명을 대상으로 바깥쪽의 음주음화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는 장수시장 내 야외무대에 부스를 설치해 △음주문제선별검사 △절주와 금주 실천방법 홍보 △치매예방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홍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사업 홍보 △금연홍보 등 중독 피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성을 알리는 활동을 마련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을 돕기 위해 대국민서명운동 300명을 대상으로 바깥쪽의 음주음화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는 장수시장 내 야외무대에 부스를 설치해 △음주문제선별검사 △절주와 금주 실천방법 홍보 △치매예방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홍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사업 홍보 △금연홍보 등 중독 피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성을 알리는 활동을 마련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국립관리소

완주군 생활개선회 운주지회 꽃감 만들기 체험행사 개최

완주군 생활개선회 운주지회(대표 이영순)는 꽃감 홍보를 위해 지난 9일 감농장 천등농원에서 체험객 30여명을 초청, 완주 8품 중 꽃감 만들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향후 귀농, 귀촌을 꿈꾸는 예비 농업인 가족 및 농작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꽃감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감을 깎아 꽃감 겹이에 겹여보는 체험으로 진행됐다. 체험 후에는 완주에 귀농한 선배 귀농인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통해 완주지역에 대한 안내와 귀농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생활개선 운주지회는 활동성 있는 젊은 여성들이 중심이 돼 최근 2년간 지역축제 및 행사에 적극 참여 봉사함으로써 지역 활력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매년 각종 봉사 및 반짝 장터 운영으로 얻어진 수익금으로 운주면 어린 학생들의 학업 장려 장학금을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지역 사랑의 희망나눔을 추진해오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군, 읍·면 순회교육 실시

'공동체역량... 향상' 특강

2016 올해의 관광도시,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 무주군이 지난 10일부터 군민역량 강화를 위한 읍면 순회 교육을 시작했다. 무주군과 (사)무주군관광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상반기 마인드 향상 교육에 이은 하반기 특강으로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 전계화 교수가 '공동체역량과 서비스 스킬 향상'에 초점을 두고 읍면을 순회하게 된다. 10일 적상면에서 진행된 교육에서 전 교수는 "성공하는 관광도시의 고객만족과 친절서비스를 주제로 주민들과 △고객 만족경영의 중요성을 비롯해 △친절한 무주군민 되기, △고객 응대기법과 매너,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친절이 관광객 유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수 관광도시 주민들의 성공사례 등을 공유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특히 △시정 환경변화에 맞춰 대응하는 것,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고객의 불만요소를 찾아 개선하고 △바가지요금을 근절시키는 것이 관광도시로서 성공하는 요건이라고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주민들은 "순방이 있어 마음이 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역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 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는 기회가 됐다"며 "교육과 실천을 토대로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 주민으로서 남다른 수용태세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체역량과 서비스 스킬 향상' 특강은 11월 10일 적상면(주민자치센터)에서 시작해 11일에는 무주읍(주민자치센터), 22일에는 설천면(주민자치센터)과 구천동(덕유산레저바이크텔), 25일에는 부남면(주민자치센터)과 안성면(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15일 개관

연회비 1만원 납부 후 회원가입 화~금 오전 9시 ~ 오후 9시까지

진안군은 장난감도서관을 오는 15일 청소년수련관 별관 1층에 문을 연다. 그동안 진안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체험공간이 많지 않아 벌써부터 장난감도서관 이용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장난감 도서관은 관내 주민 중 만 12세 이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혹은 관내 아동관련 법인·단체는 연회비 1만원 납부 후 회원가입을 통해 1년 동안 장난감, 육아용품 등을 대여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 등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연회비가 면제된다.

단 1회 2점, 14일 이내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은 일반 회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장난감도서관에는 아동의 다양한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연령별 맞춤형 장난감으로 탐구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블록류, 사회성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역할 놀이류, 예술적 감성과 표현능력을 키워주는 악기류, 근육발달과 운동능력을 향상시켜주는 탈것류는 물론 각종 보드게임 등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품들도 구비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시간을 화~금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단,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하여 맞벌이 부모의 대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의 편의를 도모 할 계획이다. 군은 단순히 장난감 대여만이 아닌 육아용품과 함께 동화책 등을 구비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용품 대여는 물론, 잠깐이나마 책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시군 장난감 도서관과는 달리 장난감 도서관이 청소년수련관내에 위치하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보드게임류, 스포츠용품 등 구비하여 참여대상을 확대했다. 이항로 군수는 "지역아동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더해져 성공적인 장난감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컨설팅 '호응'

완주군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컨설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완주한우협동조합은 지난 9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함께 고산농협 대강당에서 지역내 한우농가 40여명을 대상으로 경영, 개량, 번식, 사양관리, 축산환경, 가축질병 분야에 대한 전문가 종합컨설팅을 실시했다. 올해 6번째로 진행되는 맞춤형 종합컨설팅은 사전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분야별 최고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진행되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추진 사업이다. 이번 컨설팅에 참석한 완주한우협동조합 조영호 이사장은 "최근 생산비 상승 및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영구조개선, 사양 및 질병관리 등 기술적으로 개선할 점에 대해 컨설팅을 받게 돼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중욱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축산과 학원과 연계한 현장맞춤형 종합컨설팅은 축산물 수입증가, 사료비 상승, 구제역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기술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2년 11월 완주군 고산면에 설립한 완주한우협동조합 조합원수는 한우농가 176명, 사육두수는 8,000여두이며, 연간 20만명이 다녀가는 고산미소 한우판매장을 4년째 운영 중에 있고 2015년 매출액은 92억원에 이른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 지역아동센터연합 희망축제 '성황'

아동·청소년 등 4백여명 참석

제4회 무주군지역아동센터연합 희망축제가 10일 저녁 7시 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주최·주관한 것으로,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과 무주교육지원청 반정수 교육장을 비롯한 관내 6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아동·청소년들, 그리고 학부모 등 4백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를 행복한 홈 스톱 지역아동센터에서 준비한 난타공연으로 시작된 축제는 기념식과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준비한 춤과 악동, 악기연주, 태권도 시범, 합창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황정수 군수는 "여러분이 뿌린 희망의 씨앗이 모두의 가슴에 보탬으로 꽃피었으면 좋겠다"며 "오늘의 주인공이자 우리 무주의 주역인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드림스타트, 감사 초청 '행복한 아이 행복한 부모' 교육

진안군 드림스타트는 10일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부모 50명과 함께 군민자치센터 강당에서 '행복한 아이, 행복한 부모'라는 주제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부모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된 교육은 효과적인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기술을 터득하여 자녀와의 소통을 원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과 자녀식사를 하면서 자녀양육에 대해 공유하며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돕고자 마련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부모는 "평소에 대화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지 고민 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아이가 행복하려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군 드림스타트는 한부모, 조손, 기초생활수급아동 등 취약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부모역할,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통해 아동과 부모의 애착관계형성은 물론 건강한 가족 꾸기기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